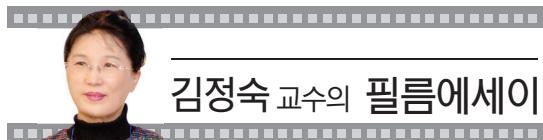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연길에서 만나는 청춘들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안소니 첸 감독 '브레이킹 아이스'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을 의미한다. 시나리오를 쓴 감독은 이 의미를 인간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확장하고 심화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브레이킹 아이스'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듯하다. 연길의 겨울은 동토의 도시다. 국경도시에 감도는 냉랭함이 더해져 이곳의 겨울은 매섭도록 차갑다. 두꺼운 얼음을 자르고 나르는 격한 오프닝으로 차가운 기운을 뽐기 시작한 영화는 계절보다 더 끔찍 얼어붙은 채 살아가는 청춘들을 등장시킨다.

연길에서 가이드 일을 하는 나나(배우 주동우), 친구 결혼식 참석차 연길에 왔다 휴대폰을 잃어버려 고립되고 만 여행객 하오핑(배우 류호연), 나나의 남사친 샤오(배우 굴초소). 이들은 과거의 상흔과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어찌지 못 한채 '어찌다 어른'이 되어 있다. 이들에게 드리워진 불안한 우울감은 공통적이다. 나나는 여행객 하오핑에게 마음이 쓰여 샤오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동행한다. 나나의 집 소파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상하



안소니 첸 감독 '브레이킹 아이스' 포스터.

쥬디스테이션 제공

이로 가려던 하오핑은 그만 비행기를 놓치고 만다. 다음 비행기를 타려면 연길에 한 주를 더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 주간의 동행이 시작된다.

우연한 만남에도 이들은 친구처럼 어울린다. 한 오토바이에 셋이 올라타고 술을 마시다 밤거리를 배회한다. 함께 서점에 들르고 마켓에서 장을 보며 카메라는 연변의 생활문화를 투여처럼 보여준다. 억압된 과거 그리고 무의미와 암담함이 교차하는 현실의 틈에서 벗어나 일탈을 즐기는 이들은 이유 없이 웃음을 터트리며 무연한 스킨십을 단순한 친밀감으로 표출하는 등 충동적으로 부유한다.

어쩌면 이들이 품고 있는 내면의 우울은 서로에게 거울처럼 비추어지면서 미묘한 위로를 받거나 한소금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모른다. 흑곰과 맛닥트

린 신에서 이들 청춘이 두른 쓸쓸함과 무력감, 더 이상 나아가지질 않는 정체 등이 침묵 속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영화 연출력이 부여하는 놀라움이다.

감독은 이렇듯 세 청춘의 성장통을 조심스럽게 사려깊은 시선으로 읽어낸다. 차가운 계절 얼어붙은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들이 서로의 마찰열로 온기를 나누며, 껍질을 깨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그림으로 써 가히 '침묵 속 위로'의 미학이라 할 만하다.

영화는 일종의 로드 무비의 형식으로 흘러간다. 국경도시 연길의 특성, 조선족의 생활문화, 결혼식 풍정에서 공감하게 되는 춤사위, 백두산과 천지의 겨울을 화면에 담아 우리 민족으로서의 선망하는 그리움을 시각적으로 해소시켜 준다. 우리에게 공명하는 정서와 무관하게 싱가포르인으로서 감독은 자국에서 보기 어려운 눈과 얼음, 한파 등 겨울의 계절감을 더

선망했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 자치구 연변은 연변만의 특징이 있다. 필자가 방문했을 적의 연변 마을 마을마다 팔작지붕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다. 바로 조선족의 집이다. 더불어, 연변거리의 한글 간판을 보거나 역양 있는 한국어를 듣게 되면 만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2015년의 일이다. 연변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던 중 필자가 '1989년 공산주의의 붕괴'를 공인된 사실로 언급했을 적에 강하게 탄핵을 걸었던 한 조선족 교수가 있었다. 그는 북한의 유일사상에 깊숙이 침착돼 있던 양이어서 적잖이 놀라기도 했고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각보다 크다 실감했던 경험이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다.

연변 조선족이 한국의 교과서 보내주기를 요청했을 적에 대한민국 정부는 호응하지 않았고 북한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내주었기에 유치원 및 초등 교육에 북한의 교과서가 쓰여왔던 것이다. 이들에게 교과서나 출판물을 보내주는 일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만큼 안타까운 일이었다. 우리의 통일에는 연변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만이 아니었다. 문화·사상적으로 우리 민족인 조선족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새삼 절감했던 곳이었다.

첸 감독의 입장에서 연길은 다층적인 의미를 두는 곳이다. 즉, 이 도시는 중국인가, 한국인가. 아니면, 이들 문화가 혼재된 나머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독자적 도시인가. 부유하는 청춘들의 성장통을 그리기에 적절한 배경이었을 것 같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KIA, 주축 선수들 줄줄이 부상... 이범호 감독의 시험대



취재수첩

민현기

취재2부 기자
hyunki.min@jnilbo.com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지난해 리그를 압도했던 경기력은 찾아볼 수 없고 중하위권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

KIA는 2025 시즌 들어 주축 선수들의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KIA의 간판

스타 김도영이 시즌 개막전부터 왼쪽 햄스트링 손상으로 한 달간 이탈했고 지난해 KIA의 리드오프를 지켰던 박찬호는 시즌 초반인 3월말 도루 시도 후 오른쪽 무릎 염좌로 약 2주간 엔트리에 공석이 생겼다. 심지어 김도영은 복귀 한 달 만에 또다시 반대쪽 다리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전열에서 이탈했다. 3년 만에 개막전에서 부상 없이 출전한 KIA 주장 나성범은 4월 26일 오른쪽 종아리 근육 부상을 입고 7월이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내야 핵심 김선빈과 외야

수비의 중심 이창진, 유틸리티 자원 박정우도 각각 근육 손상과 햄스트링 염좌 등으로 복귀 시점조차 점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펜의 핵심 좌완 광도규가 왼쪽 팔꿈치 인대 및 굴곡근 손상으로 인한 수술(토미존 수술)로 시즌아웃 됐고 선발 투수마저 전열을 이탈했다.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황동하가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6주 이상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주축 선수를 잃었다.

끝내 타선과 마운드 양쪽 모두 핵심 전

력을 잃은 가운데, KIA는 급하게 2군 선수들을 1군으로 콜업하며 '함평 타이거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 경기 임기응변에 가까운 라인업을 구성해 출전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KIA의 그늘진 시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에 출전한 라인업에서 선발 투수 양현종과 김태곤, 패트릭 위즈덤, 최형우를 제외한 선수들의 연봉만 봐도 윤도현(3200만원), 오선우(3400만원), 최원준(4억원), 김석환(4000만원), 김호령(8000만원)을 다 합쳐도 김도영 한 선수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A가 이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다행히도 대체자원 선수들이 기대치 이상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 발목을 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리그 종료까지 아직 80경기 이상 남았다. 하지만 '왕조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팀이라기엔 주전 선수가 없어 아쉬운 경기력이 반복되는 게 사실이다. 시즌의 40%를 바닥을 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범호 감독의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